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애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4:15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214-597-5553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랜,맥키니	972-206-7009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심자가의 모후	(화) 6:00 PM	꾸리아	(셋째 일)1:00 PM	캐롤톤	213-344-9129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쎌기도	(2,3주일)10시미사후	코펠	469-231-2002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972-743-932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자비의 모후	(토) 3:00 PM	콜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황금궁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214-681-4225
하상회,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972-400-2882
이냐시오회,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E. 프리스코	214-436-3648
사도회,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W.프리스코	469-831-6531
토마스회,30대	(셋째 토) 4 P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이냐시오CLC	(월,수,목) 8 PM	E. 플래노	214-316-0701
		승리의 모후	(토) 3:30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W. 플래노	818-590-3442
주일학교&청소년	(일)10:00 AM-11:15 A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리차드슨	214-770-4047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밸리랜치	214-470-8747
				재속복자회	(셋째 일) 4 PM		

교우 업체 소개

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

노바 덴탈 Las Colinas
Tel (214) 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김하운 소피아 DDS

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

성악 레슨
Vocal Music Lesson
조미경 루치아
(469) 920-9735

NCCDP National Council of Certificated Dementia Practitioners
'도란도란' 토요돌봄센터
Memory Focused Day Care
(972) 506-0177 (자원 봉사자모집)
은혜복지센터/KAS협력
www.gracedahs.org

EAST WEST BANK
Steve Hong
SBA 융자담당 (949) 697-4859
steve.Hong@eastwestbank.com
5001 Spring Valley Rd. ste 400
Dallas TX 75244

O K 에어콘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

E & 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

조앤박부동산
주택전문, 새집전문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

Greenhill Insurance
Business I Auto I Home I Medicare
(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

스턴스 건축
지붕공사, 팬스, 타일공사
리모델링, 카운터 탑
리아 (469) 878-7158

Naya Park Realtor
Commercial/Residential
달라스 부동산
박나야 아녜스
972. 514. 2213

쉐넌 정 부동산
Section8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
& 투자 전문
리스 시세보다 20%이상 수익률
& 커머셜
817-682-3078
SJrealty247@gmail.com

MDMartin
스태핑 . 인력 관리
MARK LEE 시설 유지 관리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

Shine Learning Center
JUNE KIM
미술 I 영어 I 수학 I 테스트 준비 I 스템
Carrollton Campus
972-245-7914

Sprout Dentistry For Kids
BRUSH / FLOSS / SMILE
(469) 663-0098
939 W. Stacy Rd. Ste 140
Allen, TX 75013

북나라 Book Nara
캐롤톤 H마트 몰
7 days open
(972) 245-2665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복도 끝"

First Lending
주택 Mortgage 전문
상담 · 문의 환영
김종민 베드로 (972)469-2735
Johnkim@first-lending.com
MLNS#2133163

맑음 헤어 살롱
Hair Salon
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 받습니다.

표정원 율지
집 융자 전문은행
NMLS ID#1522416
Conie.pyo@mtgmac.com
표정원 루시아
(770) 318-4542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대건주보

2025년 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 259971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 1 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시편 8,4-5.6-7.8-9(◎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로마서 5,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6,12-15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생활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585	409	673, 790	933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 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 · 목	7:30 PM 한국어
	수 · 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 녀	이체칠리아,한베로니카 214-762-5794
사 무 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 스	972-484-4628
주 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일 11:00AM - 12:15 PM
성경 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수 11:00 AM 이 체칠리아 수녀
		수 11:00 AM 박 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 · 목 12:30 PM - 8:30 PM
		수 · 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강 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지오 단원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선서하고, 사진 찍고, 강복을 줍니다. 선서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단원들이 축하해 주고, 저도 훈화와 강복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 색다른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선서하면서 울컥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선서의 내용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울컥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다짐 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의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겠나이다. 저는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성모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의 대열을 가다듬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이다." 자매님은 선서문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읽었으니, 선서문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도록 말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한 큰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감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냄새 맡고, 마음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맛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인 하느님은 바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를 감싸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과 성자와 함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감각이 아닌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체험되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적으로는 깊고 철학적으로는 난해한 주제이지만, 실존적으로는 매우 친숙한 관계의 신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성부), 사랑받는 자(성자), 그리고 그 사랑 자체(성령)" 하느님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계, 그것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고통도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해석될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플라톤은 "마음의 눈(the eye of the sou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갈 때 깨달아지는 신비입니다.

초대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체험하였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삼위이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체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학이 되고 교리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체험한 삼위일체인 하느님은 '친교, 나눔, 사랑'의 하느님이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삼위이신 하느님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 나눔,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빠의 권위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가족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빠의 보살핌과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가정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성호경을 할 때마다, 영광송을 바칠 때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도록 다짐하고 그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만, 귀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공 지 사 항

2025년 사목 목표

1.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2.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참여
3. 순교 정신으로 사회봉사
4. 미사와 기도의 중요성 강조
5.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위원회 발족



- 북미주 서울 대교구 사제모임
  두 분 신부님께서 사제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6/17 (화) & 6/19 (목) 미사 집전 :
  박락군 사도요한 신부 (오클라호마 성당)
  6월 18일(수)은 미사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청년부 총회
  일시 : 7/19 (토) 미사 후
  장소 : 교리실 (C117)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 및 추천
  추천 기간 : 6/21~7/5
  추천 방법 : 사무실 내 추천 용지와 제출함
  후보자는 신부님 개별 면담 7/6~7/18

- 윤충훈 신부 연중 휴가 : 6/23~7/4

- 달라스 CLC 지원기 모집
  이냐시오 영신 수련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CLC)에 관심이 있으신 형제님,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 손 소피아 214-679-3421

- 2026년 달력 광고 신청
  내년 2026년 본당 달력에 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시 바랍니다.
  광고비 : 350불. 선착순 마감 (12자리).

- 성당 주차장에 흰색 사선으로 그어진 주차 금지 구역(Buffer Zone)에 주차 할 경우 단속이나 견인될 수 있으니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옥(크리스티나), 엄찬길(찰스), 강경순(요안나), 마하해(스텔라), 윤지희(미카엘라), 전용환(요한), 김정자(뮤리엘), 김성희(글로리아), 이예린(세실리아), 하정희(율리아), 이상원(스테파노), 기길자(루치아), 김외분(프란체스카), 정상옥(젬마), 손현윤(가브리엘), 손현식(미카엘), 양영도(이냐시오), 김연우 제이든(요셉), 안길승(가브리엘), 한재민(야고보), 하수정(엘리사벳), 진 도미닉 프란치스코, 이복순 (카타리나), 오군석(프란치스코) 남상돈 (테오토르), 서지연 (로사) 김용진 (안드레아)

점심 봉사	구역장

건축헌금		교무금					
하수정 (5) 김현주 (350) * 도네이션 : $1,000.00 성모회 산나물 판매금		송수복, 김진, 채안토니, 한안토니, 김원희, 백수인, 인덕 리사이, 송한규, 이정구, 황종준, 장하운, 손완종, 황일규, 이상학, 윤영주, 유안나, 한원희, 이순만, 김현주, 정성문, 이순례, 박피터, 조폴, 이재호, 정해헌, 유만종, 이석호, 송강필, 김희성, 심윤정, 김윤재, 고정석, 송영신, 김미옥, #36148, 주재억, 김민영, 이흠재, 박주원, 장미자, 김순영, 오순열, 박범영, 이종국, 한준웅, 김광현, 이상엽, 전남숙, 김동연, 이헤롤드, 최희진, 공기흠, 최경옥, 신동배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96,622.73	건축	$355.00	교무금	$6,510.00	주일 헌금	$4,921.00
일반 계정	$316,085.41	특별 헌금	$415.00			주일 총액	$13,201.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20명	수 30명	목 19명	금 27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68명	10시 372명	12시 226명	3시 58명	**주일 합계**	724명